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세계합창올림픽 그랑프리

세계에 울린 전라도 '까투리~ 까투리~'

지난 19일 세계합창올림픽이 열린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공연장. '연출이 있는 민요' 부문에 참가한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심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단원들과 지휘자 이어진(37)씨, 연주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준비해 마침내 꿈을 이뤘다는 뿌듯함과 함께, 때론 힘들기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평화방송합창단)이 제5회 세계합창올림픽(The world choir games)에서 세계 각국의 48개 합창단을 따돌리고 최고의 영예인 그랑프리를 따냈다. 2년 전인 지난 2006년 중국 사면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예선 없이 바로 본선에 진출해 연을 쾌거다.

세계합창올림픽은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첫 행사를 가진 이후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합창대회로 올해는 90개국 470개 합창단, 2만4천여 명이 26개 부문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다.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은 전라도 민요 '까투리 타령'의 주선율을 모티브로 한 '까투리, 까투리'. 남부대 심동민 교수가 작곡한 작품으로 장가와 까투리의 사랑, 새 생명의 탄생을 가져다 주는 환희를 흥겨운 우리 가락과 라틴 음악으로 표현했다.



지난 19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열린 제 5회 세계합창올림픽에서 최고 영예인 그랑프리를 수상한 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이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출이 있는 민요' 부문...공연 뒤 기립박수 '감동'

신디사이저와 베이스 기타, 해금, 25현 가야금, 장구 연주와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 뮤지컬 처럼 드라마틱한 연기가 어우러진 '까투리 까투리'는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참여했던 중국 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욕심을 좀 부렸죠. 합창올림픽 한국 사무소도 처음에는 낙도 아이를 취급(웃음)하다 두번째 만에

그랑프리를 따내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휘를 하는데 객석 쪽에서 '와'하는 탄성들이 들리고, 경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죠."

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후 1997년 합창단 창단 때부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어진씨는 이번 그랑프리 수상은 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광주평화방송 장유주 사장 신부의 든든한 후원, 10여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이제는 한가족이나 다름 없는 진은정(안무), 이정희(성악지도), 허윤경(피아노 반주)씨, 작곡가 심동민씨, 현대무용가 박진수씨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들도. 특히 음악감독을 맡았던 김성광씨는 든든한 음악적 동지다.

평화방송합창단은 이번 그랑프리 수상으로 2009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합창올림픽 챔피언십' 출전 자격도 얻었다. 각 부문별 그랑프리 수상팀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총 1억원의 상금을 놓고 경쟁한 '왕중왕'을 뽑는 행사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게 돼 기쁘요. '꿈'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말이지. 어른이 되어서도 이날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늘 새기고 살기를 바라죠."

광주평화방송어린이합창단은 체코필하모닉 소년소녀합창단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으며 정용성국제음악제, 2008 동아시어어린이공연예술제 등 굵직한 행사에도 초청됐다.

수상작 '까투리 까투리'는 오는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08어린이동아시어공연예술제 폐막식에서 공연되며 올해 안에 몇차례 더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씨 기증 '세계 판화전'

유명 판화 작품 한자리

피카소 '여인상' 앤디 워홀 '모택동' 등...내년 2월1일까지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상', 살바도르 달리의 '초봄의 나날들', 앤디 워홀의 '모택동' 등 교과서와 도록에서만 보던 세계 유명 작가들의 판화 명작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오는 2009년 2월1일까지 국내외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세계판화전'을 갖는다.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하정웅씨의 기증작 중에서 유명 판화 작품만을 선별해 선보이는 전시회다.

특히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와 비슷한 기간에 열려 현대 미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해 마르크 샤갈, 마리 로랑생, 아르망 페르낭데스, 조르주 무오, 헨리 무어, 후안미로 등 해외 작가와 과인식, 김창열, 문신, 변중하, 이우환 등 국내 작가들이 망라됐다.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상'은 또렷한 이목구비를 과장되게 표현했고, 흑백 화면에 서늘한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이다. 흘러내리는 시계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의 '초봄의 나날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했다.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의 '모택동'은 당대의 유명 스타들과 저명 인사, 정치가들을 그림 소재로 차용했던 그의 대표작이다. 마블린 먼로, 리즈 테일러 시리즈와 함께 유명세를 떨친 작품이다.

망과 점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쿠사마 야



앤디 워홀 작 '모택동'

오의 '호박'도 국내에 잘 알려진 인기 작품이다. 실제 그는 사물이 점으로 보이는 환영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같은 병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더욱 유명한 작가이다. 이밖에도 이우환 '관계항'과 기하학적인 곡선, 원으로 곤충, 꽃 등을 표현한 문신의 '무제' 등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삶 자체가 예술 재료였던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판화 작품 'Exposition of Music'도 전시된다. 신문지에 빨간 색으로 글씨를 찍어낸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김민경 학예연구사는 "작가들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작품만을 골랐다"면서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10-0142. 망과 점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쿠사마 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폭에 비친 춤사위

광주·전남 문학 계간지 여름호 발간

임은순전 29일까지 서울 신상갤러리

유화에 한지를 오려붙인 특색있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양화가 임은순씨가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신상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임씨는 '춤사위'를 주제로 무용수들의 부드럽고, 역동적인 몸짓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지와 천 조각을 오려 붙여 질감을 살렸고, 여성의 신체 곡선을 두드러지게 그리는 대신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도록 손동작은 과장되게 처리한 작품들이다. 특히 수십 년간 연마한 서예의 기법이 그대로 투영됐다. 물 흐르듯 부드럽게 뻗어 나가는 글씨체의 시인함이 화폭에 담겼다. 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격조



'보름달이 밝아 어깨를 흔들거나'

를 남기고 떨어지는 별뿔뿔처럼, 무용수들의 동선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임씨는 조선대학교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전남도립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와 아천미술관 학예실장을 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주요문학 계간지들이 잇따라 여름호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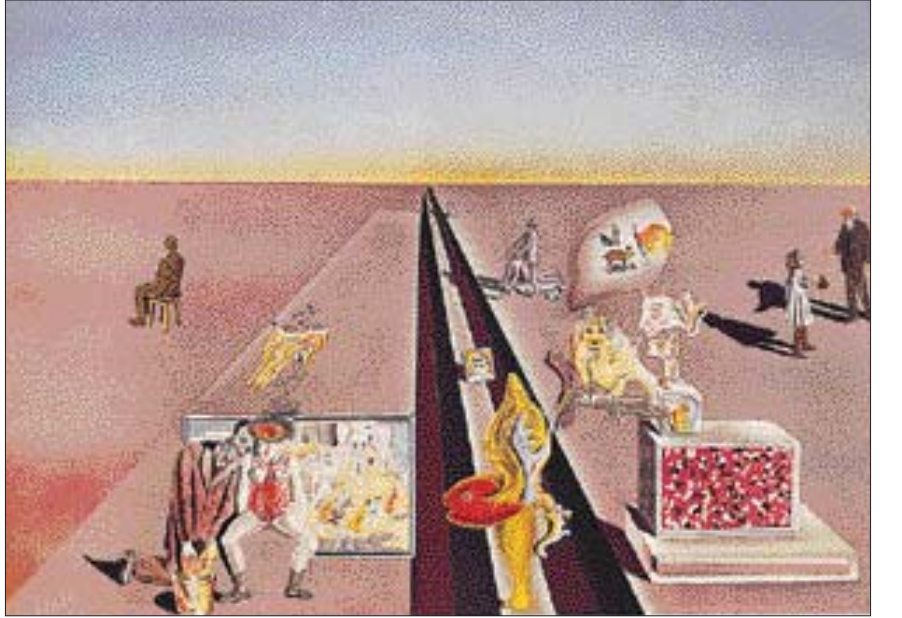
종합 문예지 '문학들'(편집주자 고재종)은 최근 펴낸 여름호에서 특집으로 '한국문학 100년의 성과와 전망'을 다뤘다. 문학평론가로 활동 중인 손정수와 김수이씨가 각각 '한국 근대 문학사와 그 이후' '거대한 뿌리, 혹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를 주제로 한국 문학의 100년을 돌아봤다. 이밖에 도종환, 문정희, 신덕룡, 이은규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됐다.

광주시민연합회(회장 오덕렬)가 발행하는 문예지 '광주문학'은 이번 호에 지역의 원로 시인인 손광은씨와 '내 시는 나의 삶'을 주제로 나눈 대담을 실었다. 또 '작가연구'를 통해 김승욱 작가의 작품세계를 살렸다. 이밖에 시 19편, 수필 11편, 동화 2편, 동시 6편 등



지역 문인들의 작품도 함께 실렸다.

전남문인협회(회장 조수용)는 '전남문학'에 제2회 전국문인 초청 전남기획과 '남도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렸던 제2회 전남문학 심포지엄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전남원광주교대 교수 등 4명의 문인들이 김현구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 글이 함께 실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살바도르 달리 작 '초봄의 나날들'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and movie posters.